

## ‘방 탈출 게임방’ 털러 간 ‘허당’ 도둑



‘방 탈출 게임방’에 몰래 침입한 도둑이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셀프 신고’ 한 사연이 화제이다.

지난 11일, CBS 등에 따르면 절도범 라이 워드로 씨는 8일 새벽 워싱턴주 밴쿠버의 한 ‘방 탈출 게임방’ 외부 쪽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잠입했다. 그는 소품들을 훔치기 위해 방을 막고 있는 물품보관함을 밀어 넘어뜨리고 잠금장치를 부순 후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워드로 씨는 게임용으로 비치된 맥주를 마신 뒤, 텔레비전 리모컨과 작동하지 않는 휴대폰을 훔쳤다. 심지어 방안에 드러누워 직접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여유롭게 아침 식사도 즐겼다. 그런데 막상 불 일을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 들어오면서 외부와 연결된 문을 망가뜨리는 바람에 꼼짝없이 방 탈출 게임방의 방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이것 저것 시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자 공황상태에 빠진 워드로 씨는 결국 자신의 손으로 911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로도 그는 계속 탈출을 시도하다 가까스로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게임방에서 탈출했지만 결국 근처에서 붙잡혀 체포되었다.

게임방 주인인 버트랜드 부부는 “처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영업장 피해가 클까 봐 걱정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도둑의 얼빠진 모습에 웃음만 났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다행히 몇 시간 동안 잠깐 정비를 한 뒤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며 “덕분에 우리 게임방이 입소문을 타는 효과도 누렸다.” 고 후일담을 전했다.

## 5개월 아이가 만든 기적과 감동



지난 7일 새벽 몬태나주 미줄라 카운티의 보안관 로스 제습과 미 산림청 보안관 닉 솔츠는 몇 시간 동안 숲을 헤매고 다녔다. 전날 저녁 한 남자가 아이를 안은 채 총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들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자를 현장에서 잡았다. 총도, 남자도 있었으나 아이가 없었다. 남자는 “아기가 너무 무거워서 산에 버렸다.” 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인근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색한 지 6시간쯤 흐른 밤 2시 30분 무렵,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흙더미 속에 묻혀 있는 5개월 된 아이를 발견했다.

제습은 아이를 품에 안고 숨을 쉬는지 먼저 확인했다.

여기저기 굽히고 명이 들긴 했지만 건강엔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또 다른 보안관 빌 버트는 아이가 무사한지 확인하러 병원을 다시 찾았다. 그는 아이의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아이는 자신을 구조한 경찰관을 알아본 듯 손가락을 꼭 잡았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흠투성이인 아이의 손톱 밑은 하얗게 변하고 손 주위에는 피가 물려 붉게 물들 정도였다. (좌측 사진)

아기는 치료 후 몬태나주의 한 아동 보호 시설로 옮겨졌다.

한편 아이를 숲에 버린 프랜시스 크롤리(32)는 강도, 폭행, 마약 등으로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아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로스 제습 보안관(왼쪽)과 닉 솔츠 보안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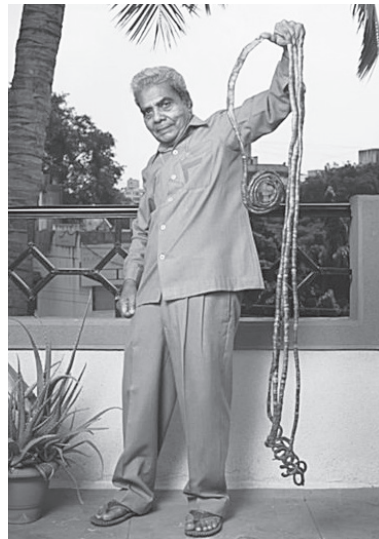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 가진 남자, ‘새 출발’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으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운 남자가 손톱을 자르고 새 출발(?)을 했다.

지난 12일, 호주 ABC 등에 따르면 인도 푸네에 사는 82살 쉬리다르 칠탈 씨(사진)는 10대이던 1952년부터 왼쪽 손톱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운동장에서 실수로 선생님의 손톱을 부러뜨렸다.” 며 “선생님은 ‘긴 손톱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이라며 나를 꾸짖었다.” 라고 회상했다.

어린 칠탈 씨는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손톱을 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바쳐 도전을 이어온 칠탈 씨는 지난 2014년 손톱 길이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손톱을 모두 합친 길이는 909.6cm였고, 엄지 손톱 하나만 무려 197.9cm였다.

그 뒤로도 꾸준히 손톱을 자르지 않고 관리하던 칠탈 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다. 합쳐서 9m가 넘는 왼쪽 손톱을 모두 자르기로 한 것이다.

칠탈 씨는 “뉴욕의 한 박물관에서 내 손톱을 평생 잘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국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칠탈 씨는 지금까지 손톱의 무게를 견디느라 붙은 채로 굳어버린 손가락도 조금씩 다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www.suhl.com  
info@suhl.com

##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 & 서 법률사무소

- **가정법 Family Law**  
이혼, 양육권/방문권, 입양, 리빙트러스트, 혼전(후) 계약
- **이민법 Immigration Law**  
가족/취업이민, 신분변경 E-2, H1B, L, O visa
- **민사/형사법 Civil/Criminal Law**  
민사소송, DUI
- **상법 Business Law**  
법인설립, 계약서
- **번역 업무도 가능합니다**



**서자경 변호사**  
Ja K. Suh, Esq.

**서자현 변호사**  
Ja H. Suh, Esq.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Certified by the State Bar of CA  
Univ. of Missouri-Columbia 법대 (J.D.)  
Univ. of Missouri-Columbia 비평론 석사

California Western 법대 (J.D., Dean's List)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멤버(ALA)  
오렌지카운티 한인변호사 협회 위원회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 이사역임  
오렌지 카운티 회장단 협회 회원 역임

**Vista (760)643-4084**  
380 South Melrose Dr., #363, Vista, CA 92081

**San Diego (658)622-6279**  
4660 La Jolla Village Dr., #500, San Diego 92122

**L.A. & O.C. (714)368-1655**  
161 Fashion Ln., Suite 111, Tustin, CA 92780

LAW OFFICES OF  
**SUH & SUH**  
A PROFESSIONAL CORPORATION

법률 문제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